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정현지입니다.



정현지 1993년 (30세/만 29세) | 여

✉ hgj7962@naver.com

☎ 010-4305-9994

☎ 010-4305-9994

🏠 (44923)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앞길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신입	회사내규에 따름	서울전체 정규직	총 4건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1.03 ~ 2015.02	졸업	동아대학교 (부산)	사학	3.37 / 4.5
2008.03 ~ 2011.02	졸업	효정고등학교	-	-

경력 신입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15.07 ~ 2021.12 (6년 6개월)	남청	영업관리 / 과장 (팀원) / 1년차	부산	-
<div>담당업무</div> 영업관리 담당(과부족 관리 및 납기협의, 마감업무) <div>퇴사사유</div> 업직종 전환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22.03 ~ 2022.09	교육이수내역	그린컴퓨터아카데미 울산점	PWA 제작 프론트엔드 개발 디지털인재 양성과정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SCSS SCSS문법을 이용한 웹페이지 스타일링 가능

MY-SQL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테이블 생성, insert문을 이용해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 select문을 이용해 테이블의 데이터 검색, update문 및 delete문 이용해서 테이블 수정 및 삭제 가능
PHP php를 이용한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 가능
React 리액트를 이용한 싱글웹페이지 제작 가능 useState, Redux를 사용한 상태관리 가능
Node.js 간단한 웹서버 제작 가능(ex.쇼핑몰 서버)
JavaScript ES6 문법을 준수하는 동적인 웹사이트 제작가능
CSS3 웹사이트 스타일링 가능 미디어쿼리를 이용한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가능
HTML5 HTML5문법을 준수하는 마크업 가능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introduce-me-theta.vercel.app/ https://mm2-shopping-client.vercel.app/ http://hjindo.dothome.co.kr/php/RECIPE2/ https://hhh-client.vercel.app/

자기소개서

<p>[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정현지입니다.]</p> <p>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정현지입니다.</p> <p>저에게 학부생활과 전 직장경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p>

저에게 학부생활은 이제껏 배워왔었던 교과과정과 달리 역사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과 관점이 존재한다는 배웠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일반 제조업 회사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입사하였습니다. 6년 6개월의 근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고객사 납기 관련 협의였습니다. 생산팀에게는 고객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고, 고객사에는 당사 생산팀에 추가 비용이 발생치 않도록 시간을 벌 수 있게 협의를 해서, 회사와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의 주 직무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납기에 차질이 생겼을때,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품을 막은 성과도 이루어졌지만, 항상 스스로의 커리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동료들과 한 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으며,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탐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원했습니다. 이보다 더 성장할 수는 있을지, 계속 현실에 안주하여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이 많아졌을 무렵,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지인들에게 코딩을 공부해보는 것이 어떤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코딩도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접근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잘 맞을거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도대체 코딩이 뭘까하는 호기심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분야는 클라이언트와 회사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이라는 점에서 제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와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매력을 느껴 퇴사 후 국비 과정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교육 이수 중에 있습니다.

6개월의 교육기간동안, 간단한 그래픽 툴 이용법과, HTML5를 이용한 마크업, CSS를 통한 스타일링,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동적인 웹사이트 제작 등을 배웠습니다. 가장 흥미가 있었던 과목은 React를 이용한 싱글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바스크립트보다 복잡해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Redux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상태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한 언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API를 이용하여 서버와 통신을 통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등록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원하는 결과값을 산출하기 위해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항상 즐거웠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수강생들은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성했는지 서로 비교해보며 조금 더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교육기간 동안 프론트엔드 과정을 이수하면서 느꼈던 점은 배울수록 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울수록 더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지만, 다시 작성했던 코드를 되돌아보니, 그때는 발견하지 못한 오류도 발견하게 되고 조금 더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하기위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웹 개발이라는 분야는 제작한 결과물이 끝이 아닌, 시작인 분야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자기개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직군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자기반성과 보완을 반복하며 더 나은 개발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을 즐겨워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웹은 직접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하나의 광장같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광장을 어떻게 구상할지 고민하는 조경 전문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프로그램(제품)의 강점과 기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끈기입니다. 단순히 잘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의지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단점은 고민과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팀프로젝트 당시, 사전 설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결국 처음 구상했던 기능 중 몇가지를 결국 포기하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시에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완벽한 사전설계보다는 기한 내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해결의 즐거움을 알고, 좋은 개발자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